

100人에게 들다

오피니언 리더와 업계 전문가 100인에게 듣는
역동적인 농식품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회가 해야 할 일



Korea Agricultural and Fishery Food Venture Investment Association



“
농림수산식품 분야 벤처투자의 성장과
선순환을 이끌며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01

김풍식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대 원장 / 손해평가사



농식품벤처투자협회 설립 3주년을 축하합니다. 농업 농촌의 동시대 키워드인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지방 소멸, 특히 농촌 붕괴가 목전직하 진행형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치유할 대책중 하나로 농업 농촌의 환경 문화지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 증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농촌의 새로운 활로 및 소득원 창출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치유농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인 치유농업의 생태계 조성과 희망찬 미래 농업을 선도할 진일보한 정책과 사업을 두 손 모아 기대합니다.

02

김자영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부장



농식품벤처캐피탈협회의 가야 할 길

- ① 농식품 특화 벤처캐피탈 육성과 전용 펀드 발굴 및 제안으로 투자 생태계 활성화 모색
- ② 정부·기관 대기업과 협력 플랫폼 구축 및 정책규제 개선 제안
- ③ 농림축산식품 관련 민간 LP 구축 및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④ 농식품분야 해외 투자자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⑤ 농식품벤처캐피탈협회를 농식품 혁신과 투자의 허브로 발전

03

조재성 / M이코노미뉴스 / 사장



우리 협회가 창립된 지 벌써 3년입니다. 현재 우리 협회는 많은 활동을 통해 농식품 분야에 희망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입니다. 농식품 분야는 기술과 자본이 융합되어야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농업을 통해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이 식품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04

정혁훈 / 매일경제신문 / 농업전문기자·부국장



국가적 과제인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종자부터 생산, 가공, 외식, 유통에 이르는 일련의 농식품 벤처기업을 튼튼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벤처투자협회가 그 중심에서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05

박병홍 / 축산물품질평가원 /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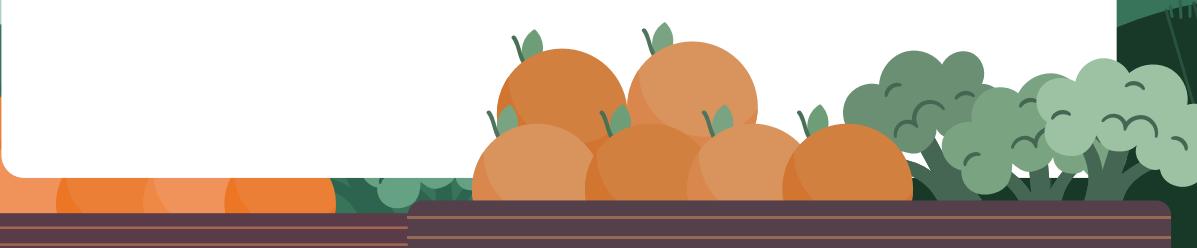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축산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의 현장 실증과 수출 연계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06

최창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원장



혁신적인 농식품 벤처가 미래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협회가 투자·기술·정책을 아우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길 기원합니다.



07 유주현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 대표이사



⋮

농식품 분야의 미래 성장은 다양한 주체들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 신뢰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협회가 중심이 되어 혁신적 농식품산업 투자 생태계를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08 정유신 / 서강대학교 / 교수



(사)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는 현재 농식품산업의 투자기관을 넘어 미래 혁신 기술과 수익모델을 발굴, 지원하는 협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벤처 투자자와 스타트업을 연결해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구조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

09 박준기 / 한국농업경제학회 / 회장



농식품 수요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기술을 적용한 농식품 사업모델 발굴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벤처투자 방식을 다양화하고,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식품벤처투자의 지속적 성장을 기원합니다.

10 조경선 / 성균관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겸임교수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협회의 창립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돈 버는 기술과 돈 쓰는 예술의 철학으로, 실행력 있는 산업 모험가에게 모험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무궁한 발전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핵심 구호 : 농식품 혁신 3년, 기술로 돈 벌고, 자본으로 미래를 쓰는 예술을 시작합니다!

비전 구호 : 모험자본으로 피우는 혁신, K-Agri Food의 미래 100년을 엽니다!

11 최현희 / 산업은행 / 실장·기술경영학 박사



(사)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설립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협회에서 농식품기업의 투자유치 및 경영성과 등에 대한 데이터 및 분석 자료 등을 업계에 제공해 주신다면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 박종록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부장



설립 3주년을 격하게 축하드립니다! (사)농식품벤처투자협회는 농식품 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협력을 통해 미래 농식품산업의 성장엔진의 프리미엄 윤활유가 되길 바랍니다!

13 이주량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박사



우리 농식품 벤처·스타트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협회가 혁신·투자·성장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제트 엔진'이 되어, 농식품 생태계 전반에 짜릿한 스파크를 일으켜 주세요.

14 윤선중 / 전주관광재단 / 대표



협회가 우리 농식품 해외 수출을 선도하는 플랫폼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15 최호섭 / 금융감독원 / 민원전문역



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기능 강화 및 확대 ② 정부 지자체 대상 농식품 벤처 정책 평가 제안 ③ 유통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 건의 창구 역할 확대 ④ 지속 가능한 농식품 펀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저변 확대 ⑤ 농식품 특화교육 과정 운영 등 전문투자자 발굴 및 육성 필요

16

박종택 /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 교수


...

‘기술 혁신’과 ‘자본’의 결합을 촉진하는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현장 특화된 전문 펀드 조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력자로 자리매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17

여경철 /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 교수


농식품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민간벤처 모기금 조성, 글로벌 자본유치 확대, 선진벤처 금융기법을 도입하며 Agtech, Foodtech, GVC를 고도화 해야 한다.

18

함민석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융복합사업실장


농식품 벤처산업은 더 이상 ‘스타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역동적 질주의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농식품 산업의 혁신 기술이 농산업 현장과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기술이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농식품벤처산업이 육성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농식품벤처투자는 R&D지원 단계를 벗어나 사업화와 수익화를 중심으로 한 투자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산업 리스크를 함께 나누는 투자 / 회수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정부·공공·민간이 공동으로 ‘리스크 셰어링’ 구조를 만들어 농식품벤처기업이 시장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19

이성도 / 신성씨앤에스 / 대표


농업 생산현장 기반 모험투자로 농산업혁신을 열겠습니다. 협회가 미래 생태계의 허브가 되길 기대합니다.

20

김재중 / 국민일보 / 문화정책국장


(사)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가 기술과 자본, 농촌과 도시를 잇는 스마트 투자의 가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농식품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AI시대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육성을 선도하며, 건강한 농식품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1

김용남 / 서민금융진흥원 / 금융심사부 전문위원


① 투자 관련 : 정기적인 기업설명회 및 투자박람회 개최, 국내투자금융회사 대상으로 협회 소식지 정기 배부, 지자체, 지역농수산진흥원과 지역기업간 연계사업 개발, 가공농수산물 펀드 개발 판매 ② 인재양성, 네트워크 : 지방대학에 관련학과 신설 추진(농산물가공업과 또는 농산물의 공상품화 관련), 지방대학 및 지방연구기관과 농산물생산업자 가공업자와 협업을 통한 벤처기업 창업지원, 선진국 농수산가공 성공사례 조사 및 자료 배부

22

김소영 / M이코노미뉴스 / 편집국장


최근 지구의 온도 상승은 식량안보와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식품의 혁신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다만 농식품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금 수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도 농식품 분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 기술 도입과 수출 활성화, 식량안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한국농식품 벤처투자협회가 정부와 발맞춰 미래 혁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3

박성완 / CBS 산업부 / 기자


먹거리 콘텐츠의 인기가 여전합니다. 높은 관심은 고품질, 고영양, 친환경 먹거리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협회의 트렌드 분석 역량을 토대로 그에 부합하는 ‘힙한’ 농수산식품·기술 성공 스토리와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소개해 투자·성장 선순환 구조가 더 강화되길 바랍니다.

- 24 나수미**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연구위원
- 농식품 벤처투자는 정책자금, 민간자본, 지역 생태계가 함께 움직일 때 성과가 커집니다. 협회가 데이터 기반 정책제안과 투자 네트워크 허브로서 창업-성장-회수의 선순환을 이끄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
- 25 이유리** / 농민신문 / 기자
- 취재현장에서 본 벤처투자는 수익률을 넘어 미래를 혁신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농식품 벤처투자는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적응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식량 안보의 질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초기 창업자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때 산업은 달라집니다.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농식품벤처투자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해 우리 농업의 밝은 미래를 여는 물꼬가 되길 기대합니다.
-
- 26 최주현** / 쿠카뉴스 지식재산사업팀 / 팀장
- 대한민국 지속성장의 핵심은 균형발전이며, 농식품·바이오 산업이 그 변화를 여는 열쇠입니다. 협회와 회원사들이 지방정부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해 농식품 투자의 방향을 선도한다면, 국가 미래산업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저도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
- 27 한상우** / 신우회계법인 / 대표이사
- 역량있는 농림수산식품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내 농식품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KAVIA)의 설립 3주년을 축하드리고 향후 역동적인 농

28 박찬호 / 이그니스 / 대표

농식품 분야의 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으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투자·현장 간의 연결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초기 기업의 시장 검증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29 이문예 / 농수축산신문 / 수석기자

농식품 벤처투자 생태계가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가 건강한 투자 환경 조성과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대정부 정책 건의에 보다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정부와 민간을 잇는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

30 엄성길 / 삼성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사

(사)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가 지향하는 농식품 벤처 생태계는 이제 단순한 투자 지원을 넘어, 민간과 공공, 기술과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융합형 혁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수산·식품 현장의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농촌진흥기관, 수협, 산림조합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투자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K-푸드, K-농기자재 등 글로벌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글로벌 벤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협회가 지향하는 “투자-성장-회수”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하고, 농식품 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INVESTMENT

31 이대정 / SC제일은행 / 상무


⋮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AI 열풍과 함께 우리 사회가 빛의 속도로 발전, 변화하고 있으며 농식품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빠른 변화의 시기에 협회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벤처기업들의 특성상 사업 본질에 집중하는 것도 빠듯한 상황에서 각 분야의 현황과 투자 기회, 최신 트렌드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 등은 매우 중요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회원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분야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32 정상호 / BNK 경남은행 수도권영업센터 / 기업금융지점장



① 투자 연결의 실질적 성과 확대(후속 투자, 판매처 개척 등 실질적 결과가 필요. 전문화된 투자자 네트워크 기대)

② 규제 대응 및 정보 제공 강화(식품안전, 표시법, 수입 규제 등 복잡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법률·정책 실무 지원)

③ 농업·식품 시장과의 연결(기존 농업 현장·대기업 식품회사와의 협업을 다리처럼 연결해주는 역할) ④ 신뢰할 수 있는 산업 데이터 제공(농식품 투자 보고서, 리스크 요인, 글로벌 트렌드, 벤치마크 사례 등)

⑤ 유망 기업의 발굴 ⑥ 기술 기반의 생산성 향상 지원(실제 농업현장에 도움이 되는 기술 연계) ⑦ 농가와 스타트업 간 협업 모델 제시 ⑧ 대기업 식품회사와 스타트업 연결(OEM·공동 개발·시험생산 등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산업 연결자 역할)

⑨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 혁신 확산(대체식품, 기능식품, 친환경 농업 관련 신뢰성 검증·가이드 제공)

⑩ 농식품 기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농업의 고령화·기후위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기업의 성공 사례 발굴·홍보)



33 박채희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 매니저



혁신과 역동성을 중심으로 하여 농림수산식품 벤처 생태계가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식품벤처투자협회의 역할과 책임도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식품모태 펀드가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길을 트고 벤처자금을 유인한다면, 협회는 농식품 투자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정표 역할과 정책과 민감 금융을 잇는 브릿지 역할을 지속해 주기를 바라고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34 이상주 / KB국민은행 / WM 수석전문위원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K컬처의 중심으로 자리잡는 K 푸드 유니콘 기업의 탄생을 이끄는 산실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농식품 벤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장기적인 민간투자 펀드 조성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35 이현상 / 공인회계사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과 벤처투자생태계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성과를 이뤄낸 한국 농식품벤처투자협회의 창립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농식품을 포함한 농업은 이제 전통의 경계를 넘어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가 결합된 융합의 길을 이미 가고 있고, ESG가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등 변화의 물결이 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로 수십년간 자본시장의 중심에 있어왔고, 모태펀드 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이사 그리고 본 협회의 위원장으로 십년 가까이 벤처생태계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맞이하는 변화에는 투자자의 통찰, 창업가의 혁신, 그리고 신뢰를 구축하는 회계, 세무, 재무 등 전문가, 이렇게 삼박자의 설계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글로벌 마켓에서 이제는 기업의 기술, 시장성만큼 중요한 것은 투자와 신뢰의 구조화, 즉 지속 가능한 투자 인프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협회가 그 신뢰의 플랫폼으로서 농식품 벤처생태계의 중심축이 되길 기대합니다.

36

정형민 / 공인회계사


:

민관과 현장을 잇는 플랫폼으로 농식품벤처 생태계 성장을 이끄는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37

정명 / 키로스벤처투자 / 대표이사


국민의 삶과 밀접한 농림축산식품 산업의 중흥이라는 기대를 품고 사단법인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가 출범한지 3년을 넘어 이제는 회원사가 100개 투자사를 육박하는 규모를 갖춘 협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제 협회는 국가의 당면한 과제인 지역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의 현장에서 지역 농림·축산·식품 경영체의 AI 기술 대전환을 리드하는 전문적인 지원 역량을 기울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38

박준상 / 시리즈벤처스 / 대표


농식품 모태펀드 확대와 민간 출자 유치로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고,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구심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39

신진오 / 와이앤아처 / 대표


농식품 스타트업이 실패 없이 성장하려면 초기 투자와 밀착 보육, 그리고 시장 연결까지 우아로운 통합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가 이 모든 흐름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VENTURE

40

이규엽 / 대성자산운용 / 대표


농식품 분야의 잠재력은 이제 금융시장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본격적으로 실현될 시점입니다. 우수 기업이 성장·투자·회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랍니다.

41

조혜은 / 티비지파트너스 / 본부장


유망 농식품벤처투자협회는 농식품분야 유망 벤처를 잘 발굴하도록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개선과 강화에 대한 의견 제안과 조율역할, 농식품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많은 ACVC들을 위한 성장 가이드 역할, 농식품산업 특성상 세컨더리 펀드 조성생태계 역할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간의 연결고리, 강화의 역할과 장마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2

전화성 / 씨엔티테크 / 대표


농식품 분야는 기술과 자본, 지역과 혁신이 융합되어야 합니다. 협회는 초기 단계 혁신기업의 실험과 도전을 뒷받침하는 투자·보육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을 해야합니다. 농식품 벤처의 씨앗을 키워 세계 시장으로 연결하는 생태계의 허브가 되길 기대합니다.

43

진재광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 감사실장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기술을 시장으로 이끌어내며, 국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협회의 노력이 곧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미래입니다. 협회가 만들어낼 새로운 생태계가 대한민국 농식품산업을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이끌기를 기대합니다.

44

김태현 / 경남벤처투자 / 전무


협회가 향후 민간과 공공, 투자와 창업, 기술과 현장을 아우르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기능을 강화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5

성민 / 유니온수산투자조합 / 대표펀드매니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농림축산식품 산업의 중흥이라는 기대를 품고 사단법인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가 출범한지 3년을 넘어 이제는 회원사가 100개 투자사를 육박하는 규모를 갖춘 협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제 협회는 국가의 당면한 과제인 지역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의 현장에서 지역 농림·축산·식품 경영체의 AI 기술 대전환을 리드하는 전문적인 지원 역량을 기울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46

최창호 / 한국식품기술사협회 / 이사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위상이 향상되고 있었으나 국내 식품 제조사의 스마트 제조 기반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K-푸드 스타트업 경영체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성을 높이는데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K-푸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동화와 지능화를 기반으로 생산시스템 구축하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받을 경영체에 대한 수준 진단과 역량 향상 기술지도 또한 지원되어야 합니다. 지원 사업을 수행을 위해서는 (사)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농식품부에서 R&D, 제품 개발, 기술지원, 수출 마케팅, 투자 등을 여러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스타트업 창업자는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❶ 회원사간 정보공유의 장 마련 : 희망하는 회원사간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농림수산식품 산업 및 투자 정보에 대한 통계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지원 ❷ 투자전문성 강화 : 농식품 전문투자 심사역 인증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❸ 농식품 창업·투자 생태계 지원 : 농식품 스타트업 대상으로 전략기획, 투자유치(IRR)등의 교육제공 및 투자자 풀(LP pool) 확대 지원

47

이수동 / (사)중소기업푸드테크협회 / 회장


현재 AI시대에 AI푸드테크 기술이 농식품산업에도 혁신적으로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현실이고 이에 따른 혁신적이고 새로운 첨단기술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회에서는 그런 업체를 발굴하고 연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8

노정수 / 아세아손해사정(주) / 대표


대한민국 농식품의 발전을 위해 남들이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정말 귀한 일들을 만들어 오는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새해에는 좀 더 발전한 AI형 틈새 농식품 시장을 만들기 위해 혁신적이고 능동적이며 디테일한 투자가 과감하게 이루어져서 농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49

장익수 / 경영기술지도사회 / 경영지도사


❶ AC의 초기 창업기업 의무 투자비율 한도 폐지 ❷ AC, VC, PE의 라이센스 다원화 관련 재정립과 자격요건 강화로 자질 개선(기존사 퇴출 불가피) ❸ 2의 당근 정책으로는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루키리그를 더 활성화하여 트랙레코드가 적은 투자사에게도 기회 확대 ❹ 투자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후기투자자인 금투사 경력자를 AC, VC 설립 전문가 요건에 필수 포함



50 이지형 / 여의도이치과의원 / 원장



⋮

회원사들이 전문적인 투자심사역량을 갖추고 유망한 기업을 많이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기업 성장을 돋고 투자된 자금의 회수를 통한 투자의 선순환이 잘 되게 하는데 협회가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51 김경환 / (주)휴밀 / 대표



농식품 혁신은 기초기술에서 시작된다. 투자 흐름이 식품산업의 근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식량주권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52 김명보 / 인지어스 / 전무



최근 인구 소멸 위기가 화두입니다. 그와 동시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퇴직(정년 포함)이 급증세입니다. 당장의 생계를 위해 재취업을 하고 계시지만, 일부 여유가 있거나 퇴직 공무원들의 경우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협회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창업 설명회(가능하다면 인구 소멸 지역을 기반으로 해볼 수 있는)를 해보면 어떨까요? 농림수산식품이다 보니 사업장이 외진 곳에 있어도 유통/판매에는 큰 제한이 있지 않아 보이는데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인구 소멸 지역으로의 자연스런 이동을 통한 관계 인구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3 김정기 / 동주플래닛 / 대표



(사)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가 소규모 창업자 및 6차산업 경영체의 초기 투자 연계나 시장 진입을 위한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등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벤처투자뿐만

54 김정길 / 행복느낌 / 대표



(사)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고민

- ① 첨단 농업 기술 및 바이오 산업 투자 - 스마트 농업 솔루션 투자 - 푸드테크 및 바이오 벤처 투자
- ② 지속 가능한 농업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 투자 - 친환경 농법 및 순환 경제 모델 투자 - 기후 탄력성 확보 기술 지원 투자
- ③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프랜차이즈화 투자 - 해외 시장 진출 컨설팅 및 투자 - 한국형 농식품 프랜차이즈 육성 투자
- ④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및 인재 육성 투자 -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 미래 농식품 인재 발굴 및 육성 투자

55 국동전 / 前 농림축산식품부 / 경제학 박사



협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농림수산식품분야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유관 공공기관과 소통을 잘 함으로써 벤처투자 규모를 키우고 나아가 우리나라 농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 하기를 바랍니다.

56 김진혁 / 한국취업컨설턴트협회 대표 / 행정학 박사



우리는 희망과 성장의 메신저였습니다. 글로벌 진출의 방향성 제시와 문화를 결합한 개인의 등에 올라타야 합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도 개인의 비전과 용기만으로는 불가능했고, 누군가의 '믿음과 투자'가 있었습니다. 항로를 개척하며 기회의 땅으로 향하는 과정의 눈물과 불확실성을 닦아주는 길잡이가 되세요.

57

안소영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본부장



⋮

(사)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에서 농생명 혁신 지역인 전북, 전주지역 기업을 위해 투자, 협약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

홍현권 / 제타플랜 / 대표



농식품 스타트업이 모태펀드 이후 성장 및 회수(Exit) 단계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글로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M&A 및 전략적 투자 지원 강화

출구전략 다변화 : 농식품 스타트업의 주요 회수 채널을 기존의 IPO(기업공개) 외에 전략적 투자 유치 및 M&A로 확대해야 합니다. **대기업과의 연계** : 국내외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및 중견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식품 스타트업이 전략적 투자자(SI)를 유치하거나 M&A를 통해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M&A 전문성 활용** : 제타플랜인베스트가 보유한 M&A 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농식품 벤처기업들이 성공적인 회수 및 성장 전략을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

투자 로드맵 확보 : 모태펀드 초기 투자 이후, 전략적 투자자 연계 → M&A/IPO로 이어지는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투자-회수 로드맵을 확보하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농식품 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민간 투자 유입 촉진** : 성공적인 M&A 및 전략적 회수 사례를 창출함으로써, 농식품 산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투자 유입을 확대하고 산업 고도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③ 글로벌 도약 지원

시너지 효과 극대화 : 투자받은 스타트업이 M&A를 통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59

김하섭 / 메디프레소 / 대표



농식품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벤처펀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GP)인 투자사(VC)와의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가 농식품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투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맙아주시고 프로그램 내부나 외부에서 다양한 VC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면 역동적인 농식품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60

박범주 / 더솔룸 / 대표이사



농식품 벤처투자는 자금을 넘어 '생태계 연결'이 핵심입니다. 투자사-기업-기술파트너-유통전문가를 이어주고 협업을 조율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면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61

박상호 / 니즈 / 대표



농식품 분야의 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으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투자·현장 간의 연결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초기 기업의 시장 검증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62

장세훈 / 에스앤이컴퍼니 / 대표



농식품 투자 활성화는 창업 생태계를 키우는 필수조건입니다. 위축된 국내 투자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K푸드에 대한 높아진 해외 관심을 성과로 엮어내려면 협회가 구심점이 돼야 합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63

박윤경 / 스트븐푸드테크 / 대표

농식품 산업 내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성장-회수(Exit)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가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고 더 번창하기 기원합니다.

글로벌 식품산업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저희는 K FOOD의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지는 현시점에 민간과 공공, 투자와 창업, 기술과 현장이 함께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다리로서 중앙 소통 플랫폼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 협회가 이 역할을 담당하여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양적인 성장에만 투자 목표를 두지 마시고 k food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질적인 성장 목표에 더 주력해주시길 바랍니다.

64

전현욱 / 코리아식품 / 대표

혁신적인 농식품 기술에 대한 과감한 초기 투자가 역동성의 핵심입니다. 협회가 기술과 자본을 잇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되길 바랍니다.

65

권은서 / 인트윈 / 매니저

농식품 벤처투자 생태계의 질적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실무형 인재 양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농식품 특성에 밝은 전문 투자인재를 꾸준히 배출하여 산업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INVESTMENT

66

김영기 / 전주시지역소통협력센터 / 팀장

농촌지역에 식품사막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된 유통 투자나 기업의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펀드조성에 대해 의견 드립니다.

67

김호정 / 마케팅하우스 / 대표

농식품 창업 패키지 지원팀 운영, 창업기획, R&D·브랜딩·유통을 하나로 묶는 '패키지형 성장지원'이 필요합니다. 제품 개발-시장 검증-대형유통 연계까지 이어지는 통합 프로그램을 협회설계, 실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8

박민수 / 베리워즈 / 부사장

농식품 벤처투자는 자금을 넘어 '생태계 연결'이 핵심입니다. 투자사-기업-기술파트너-유통전문가를 이어주고 협업을 조율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면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69

양시진 / 솔트앤파이어몬드 / 자문·경영학 박사

우리나라도 선진국 사례처럼 가업승계에 의한 전통적인 명문 기업들이 농식품 분야에서 많아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데 협회가 일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0

정원욱 / 승마 사업자 / 임업 경영인

지역에서 승마장 운영과 임업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역경제와 도농 교류 그리고 말과 숲을 통한 치유 등 국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에도 사업의 규모 증대와 안정화를 위해 정책금융이 지원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71 신예선 / 블라썸디자인 / 대표



민간과 공공, 투자와 창업, 기술과 현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①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미팅데이·세미나·포럼 등 다양한 만남의 장을 마련해 교류를 활성화하고 사기를 진작한다. ② 농업 기술 스타트업을 위해 세제 혜택과 R&D 개발비 지원을 확대하여 기술 혁신과 사업화를 촉진한다. (농식품 창업 경진대회 개최, 우수 기업 개발비 등 지원금 전달식 등등) ③ 농식품 벤처 생태계 참여자 간 데이터와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화 한다.

72 오나나 / 월쿱 식품문화예술 협동조합 / 이사장



먹거리는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소비자들의 삶에 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 생산과정에서 고민하는 다양한 혁신은 그것을 비전의 눈으로 보는 자들이 각자의 의지를 함께 맞출 때 그 혁신은 비로소 현실화됩니다. 의지를 묻기만 하는 협회가 아닌 의지를 가진 협회로 그 방향을 맞추는 3년이 되길 바랍니다.

73 오정민 / Devfive / 대표



농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은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생태계 확장에서 시작됩니다. 협회가 민·관·산·학을 연결하는 허브가 되어 투자와 기술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해주길 기대합니다.

74 이홍균 / 그린팜텍 / 이사



스마트팜에서 내부 IoT 위주의 투자에서 에너지 효율과 자연광 이용률을 높이는 외장재에 대한 투자 확대, 플랫폼 광고 지원을 위한 투자 확대



75 윤소민 / 전주알리미 / 1인 기획자



(사)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에서 비옥한 전북지역의 토지를 활용한 유익농산물에 과감하고 아낌없는 투자와 협업연결,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많이 해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76 이홍표 / 현대에이치티 / 차장



① 민간 투자 참여 확대 - 공공 중심에서 민간 VCACLP 참여 확장 - 농식품 특화 펀드·공동 투자 플랫폼 구축
② 농식품 × 기술 융복합 성장 - 스마트팜·푸드테크·AI·IoT·그린바이오·기후테크 집중 지원 - 반려동물·헬스푸드·고부가 식품 등 신시장을 적극 공략 -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

77 정성목 / (주)포인트업 /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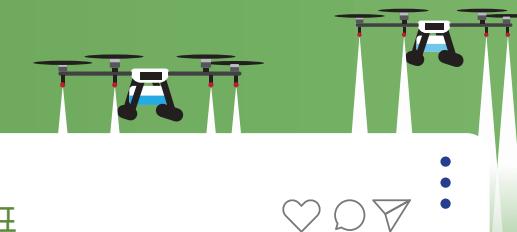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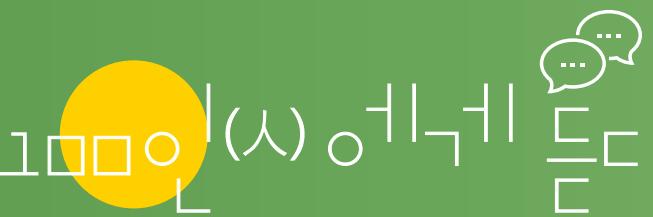
급변하는 농식품 환경과 국제경쟁 속에서 현장의 가능성을 실천으로 잊고 작은 혁신이 지속되는 구조를 만드는 일 - 그 길을 협회가 함께 해 주길 기대합니다.

78 정인수 / (유)한국농식품벤처투자연구원 / 수석연구위원



(사)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설립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보다 활기찬 농식품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투자자, 농식품 벤처기업, 정부기관 등 참여자간 소통과 연대가 중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협회가 주축이 되어 협회지, 소식지 등 온·오프라인 공식 간행물을 발간하여 회원사 등 관련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수 농식품 벤처기업 소개, 벤처투자 모범사례 소개, 최신 정보 및 정책동향, 인터뷰, 회원사 동정 등을 다루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의 눈부신 성장을 기원합니다.



79 조영관 / 도전한국인본부 / 상임대표

농식품 벤처투자는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도전정신으로 혁신을 이끄는 농식품 벤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합니다.



80 최세현 / 인트윈 / 대표

농식품 관련 스타트업이 인재, 시장, 자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회가 보육·투자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실질적 애로를 해결하며 정책제안의 플랫폼 허브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길 바랍니다.



81 최용원 / 815엠엔비 / 대표

농식품 벤처의 성장은 투자만이 아니라 실질적 시장 연결에서 완성됩니다. 현장 중심의 기술 실증과 글로벌 확장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길 바랍니다.



82 하명기 / 와이즈포스트 컨설팅그룹 / CEO·경영학 박사

협회의 제2 도약은 유라시아 범 알타이권과 연계한 K-농식품 글로벌 진출에 달려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을 카자흐스탄·우즈벡·몽골·튀르키예 등과 연결해 기술·투자·인재가 순환하는 새로운 농식품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전문 리더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AGRICULTURE



83 하진봉 / KOC(KAIST One Club) / 부회장

농식품 혁신의 디딤돌로서 농식품 벤처생태계의 역동적인 미래 100년 초석을 놓는 협회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84 임재환 / 미래에셋증권 투자센터 대구 / WM이사

오늘날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 농식품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회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투자 유치 활성화, 기술 개발 지원,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농식품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 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꿈과 열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협회가 될 수 있기를 늘 기원드리겠습니다.



85 김범호 / 맥스컨설팅 / 이사

❶ 투자력 강화 - 협회 자체 투자금 확보 - 또는 VC자금 0%를 협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
 ❷ 농식품벤처 지원 - 협회 자체 지원서비스 보유 * 컨설팅 등 ❸ 인증센터 기능 보유 - 별도의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고, 이 인증을 확보한 농식품벤처는 VC와 1:1대면미팅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86 박신호 / (유)한국농식품벤처투자연구원 / 수석연구위원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들을 원료로 각 지역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투자·금융상품들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협회가 농협 등 금융기관과 투자사간 협업을 위한 통로 역할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87

김희수 / (유)한국농식품벤처투자연구원 / 이사장·경영학 박사

농업 선진국 투자금융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 농산업 특성과 현실에 맞게 각종 금융 지원 시스템을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적극적으로 하는 협회가 되길 바랍니다.

88

조형구 / (유)한국농식품벤처투자연구원 / 선임 연구위원

지자체·대학·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매년 우수경영체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이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행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회원사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89

문종기 / (유)한국농식품벤처투자연구원 / 선임 연구위원

임업 분야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임업인들도 정책금융과 펀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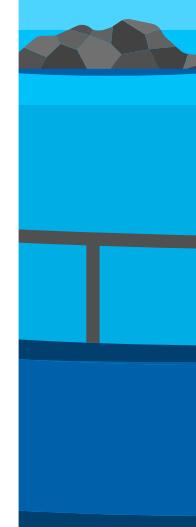
석종철 / (유)한국농식품벤처투자연구원 / 선임 연구위원

지역의 우수한 임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하는 경영체들이 크게 성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임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91

김은환 / 임업 신지식인

협회가 임업진흥을 위한 여러 기관들과 교류를 통해 전문 임업인들의 투자유지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임산물과 가공된 제품의 마케팅에도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92

강태균 / (유)한국농식품벤처투자연구원 / 선임 연구위원

세계적으로 K FOOD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투자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93

최인문 / (사)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 전문위원(대외협력)

농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게 AI, 로봇 등이 농업용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94

문하나 / 위캔 / 대표

농식품 스타트업의 현장 현실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투자·금융 연계시스템을 강화하고 정책 건의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농산업 기반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합니다.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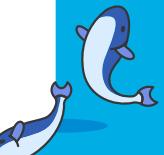
이명화 / 콩지팥찌 / 대표

우리나라의 좋은 농산물을 연중 다양으로 사용하고 차별화된 기술을 활용하여 외식업을 하는 경영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원료의 공급망 관리 등을 위한 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96

금요섭 / (사)중소기업푸드테크협회 / 총무국장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하는 푸드테크 산업육성법의 취지에 맞춰 펀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협회가 해야 한다. 특히 제3조 지역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육성을 중소 식품기업과 협력을 만들어서 법에 규정된 취지에 맞게 협회의 회원사가 투자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97 이종훈 / 에어몬주식회사 / 대표

K-Wave가 미국 등 전 세계를 강타하며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과 현지 한인들의 가게 성공이 한국식품의 등대가 되어주었다면, 이제는 한국의 주류 음식이 마트와 프랜차이즈로, 이를 뒷받침하는 K-푸드테크가 대세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 수출 다리가 되어 줄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 세계인이 각자 동네에서 '한국의 맛'을 볼 수 있을 때까지 '큰 뒷배경'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8 정재홍 / 성원이엔아이 / 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요정책으로 밀고 있는 푸드테크 발전의 12개분야 즉, 식물기반 식품 제조, 세포배양식품, 간편식제조, 맞춤형식품, 식품 프린팅, 식품스마트 제조, 식품스마트 유통, 외식푸드테크, 식품 업 싸이클링, 친환경식품포장, 바이오식품, 팜테크 등에 펀드투자를 집중하여서 정부정책과 함께 가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99 박노근 / 중소기업푸드테크협회 / 기술국장

그동안 회원사 확대와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였다면 이제는 세포배양식품, 스마트팜, 식품업 사이클링 등 차세대 식품회사는 물론 식품 제조공정 자동화를 위한 AI, 로봇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푸드테크 전문 IT회사를 발굴하여 투자협회 회원사들이 투자 규모를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 장현진 / 전주시지역소통협력센터 / 선임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인근 R&D 인프라와 전주 한옥마을의 문화적 가치를 결합하여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지역 융합 사업을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1 박석규 / (주)스마트앤유 / 대표이사

(사)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가 개별 기업의 성장을 넘어, 대한민국 농식품업체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우량한 푸드테크 업체를 발굴하여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드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02 박경대 / 페어로스트 / 대표

청년 창업을 독려하고 금액이 적더라도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펀드가 만들어 지면 좋겠습니다.

103 강영실 / 교보생명보험 / F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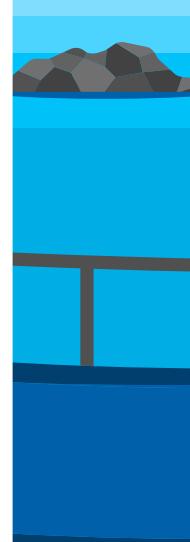
투자와 금융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합니다. 투자자들의 소중한 자산들이 잘 보호받고 투자수익률도 높일 수 있도록 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104 송정희 / 삼성생명보험 / FC·명예사업부장

우리나라 농식품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분야입니다. 농식품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고 최고의 기술들이 사용되어 세계 최고의 기업인들과 기업인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앞장서는 협회와 투자사(회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05 김희수 / 전주시지역소통협력센터 / 주임

전북이나 전주 내에 농식품 기반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나, 이런 팀들이 실제 투자나 협업으로 연결되는 기회는 아직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에서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투자 모델이나 파트너십의 기회를 만들어주신다면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여의도동 12)
CCMM빌딩 B121A (사)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사무국
T. 02-761-9449 www.kavia.org